

■ (언론 동향) 2022.10.4. “농수축산신문” 보도

○ [Issue+] [2022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부문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쌀값 하락과 식량위기 심화, 농산물 수급불안 가중 등 농업이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농식품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반토막’

비료 가격 폭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지원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올해들어 요소 수입가격은 95%, 인산이암모늄은 72%, 염화칼륨은 100% 가격이 상승하며 비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 농업인이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처했다”며 “지난 2차 추경 당시에도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정부 분담률을 30%에서 10%로 줄였는데 이번에도 기재부가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을 보니 정부의 농업과 농업인 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1800억9900만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상반기 예상 판매물량 64톤에 대한 1000억 원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가수요가 발생해 농업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하반기에 비료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유신 기자 >